

신행도 카드 한장으로 '척척'

보문중, 신도·종무관리 활용...가맹점 운영도 검토

교계 처음으로 신도카드를 이용한 사찰관리전산화 시대가 열린다.

보문중은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종무행정 전산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준비해오던 신도관리시스템을 오는 21일부터 서울 보문사(주지 법준스님)에 설치, 실험단계에 돌입한다. 앞으로 각 사찰, 신행단체의 법회 참석률, 연령·직업·지역별 신도분포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도의 교육은 물론 포교활동에도 활용하게 된다.

신도증가로 인한 관리의 부재,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의 주요내용은 신도의 교적관리, △재무관리 △출입금관리(축원문, 발승업부, 각종 결산) 등이 입력돼 있다.

이밖에 각종 정기·특별법회의 참석유무, 인동비 납부 현황 등이 입력되어 신도들에게

제공된 신도카드를 이용,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사찰, 신행단체의 법회 참석률, 연령·직업·지역별 신도분포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도의 교육은 물론 포교활동에도 활용하게 된다.

신도증가로 인한 관리의 부재,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의 주요내용은 신도의 교적관리, △재무관리 △출입금관리(축원문, 발승업부, 각종 결산) 등이 입력돼 있다.

이밖에 각종 정기·특별법회의 참석유무, 인동비 납부 현황 등이 입력되어 신도들에게

하는 상점에 가맹점을 설치, 사찰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속에서도 신도들의 교류를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산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 온 보문중 부원장 법준스님은 "인력난 해소와 효율적인 신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보완 신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한편 모든 업무체계의 검사와 검계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보문중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이용한 사찰관리시스템이 앞으로 각 종단들 뿐 아니라 불교단체에 활용된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찰운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중근 기자)

보문중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이용한 사찰관리시스템이 앞으로 각 종단들 뿐 아니라 불교단체에 활용된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찰운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중근 기자)

'소적새마을' 정상화 초입기

법인설립 자산기부 공증 마쳐...복지사 채용

중앙승가대학의 소적새마을 인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과 소적새마을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소적새마을 자원을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다'는 공증증서를 마쳐 법적적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학은 소적새마을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복지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소적새마을 임시위원장 각밀스님(중앙승가대 교학국장)은 "소적새마을 원생들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1차 검진을 마쳤다고 보고"라며 "후원자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승가대학은 소적새마을 정상화를 위해 간호사, 영양사 등의 복지사를 채용하고 주거환경 개·보수에 들어갔다.

회가 있게 된다.

한편 금산사는 8월23~25일, 통도사 29~31일, 불국사 8월30~9월1일까지 각각 2박3일의 말사주지 연수회를 갖는다.

망실토지 9천6백여평 호습사 또 되찾아

삼성산 호습사(주지 원옥스님)는 최근 또 다시 9천6백여평의 망실 토지를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각고의 노력 끝에 1천5백여평의 망실토지를 되찾았던 원옥스님은 당시 정부문서기록보관소에서 아직도 9천여평 이상의 토지가 미등기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옥스님은 5개월여의 노력 끝에 내부부와 구청을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9천6백여평의 망실토지 재등기소유를 국가로부터 최종 인정받았다.

올해년 하안거 해제

불기 2539년 하안거 해제가 지난 11일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중흥 원하스님은 하안거 해제법회를 통해 "불가엔 사립없고 세한 바림만 불 뿐이요, 돌장을 베개하니 곳은 장대비로다"고 설했다.

보문중은 사찰관리시스템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부원장 법준스님과 실무책임자 손동일과 장이 신도카드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웃아픔 함께하는 정토 만들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발족...23~25일 관리자 연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오는 23~25일 '자원봉사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자원봉사단을 발족한다.

이번 자원봉사관리자 연수교육은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보여줬던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기존의 자원봉사조직을 더욱 강화, 조직화된 종단의 활용가능 자원을 교육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가칭)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단을 결성,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25일에는 '불교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전국교의 주요사찰 스님 및 사무장 50여명과 불교관련 사회복지시설단체 관리자, 기존 자원봉사활동단체 임직원 등 자원자를 대상으로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실시된다. (02)723-5101

두승사회복지관 개관 장애인 복지사업 역점

사단법인 불국토가 위탁운영하는 두승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이 이달 2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동2동 복지관에서 공식 개관식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종합상담실 △취업정보실 △직업보도사업 △취미기능교실 △무로급식제공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출판 및 홍보사업 등을 벌이는 것 외에 부설 '다정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성철스님 탐 방승관련 MBC 정보 보도

최근 MBC뉴스에 방송됐던 '성철스님 사리탑 현상설계표 절 시비'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알려졌다.

MBC는 7월30일 'TV속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방송보

도는 당사자인 건축가 우경국씨의 작품성에 대해 충분한 반영이 보였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6월14일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을 통해 '성철스님사리탑 설계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우경국씨의 작품이 일본건축가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보도, 이에 대해 우씨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며 중재를 신청해 MBC가 정정보도를 했다.

도지사 사적비 도문화재로

경북 선산군 해평면 송곡리에 위치한 해동 최초의 가람

월정사 말사 주지연수

금산사·통도사·불국사도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소임자 및 말사 주지연수회가 오는 17~19일 월정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수는 17일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특강, 18일 신도조직 관리(지홍스님) 현대사회의 수행과 포교(도법스님) 미래의 전망과 승가의 역할(법성스님), 19일 불교교과 관리(신영훈) 지역 사찰의 사회복지사업(이용근) 등 강의와 본말사 주지스님들의 간담

불기 2539년 하안거 해제가 지난 11일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중흥 원하스님은 하안거 해제법회를 통해 "불가엔 사립없고 세한 바림만 불 뿐이요, 돌장을 베개하니 곳은 장대비로다"고 설했다.

보통사 서울포교단 구룡사(주지 정우스님)는 만불전회향원만 성취기반 사정정진대법회를 8월15일부터 11월22일까지 백일간 갖는다.

법회는 오전 9시 기도정진, 10시30분 만불명호경 사경, 12시 108배 대참회 정진 3회의 순으로 백일간 사경과 함께 총 3만배 정진을 실시한다.

속한 경동건설의 공사재계는 문제해결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농성장소를 방문한 경동건설 관계자 측은 현장공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법원에 관련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졌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원과 경동건설의 광범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한 관계자는 쌍방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현장 실사가

구룡사 만불전 회향 '백일간 사경'

오는 21일 판사 임회래 공사 현장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사운영방안 협의 중앙승가대 24회 이사회

중앙승가대학(이사장 월주)은 지난 7월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4회 이사회를 갖고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흥천사 토지문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비구니 기숙사 건립, 본관 4·5층 증축에 따른 재산·증자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홍스님(신홍사 주지)을 감사에 선임했다.

'불교판례·문답집' 11월 발간

조계종, 재산 손실 방지위해...사례 모집중

불교관련 판례 문답집과 불교관련 판례 전례 모음집이 각각 발간된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본말사 및 스님이 제기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례를 집대성하고 이를 판례의 근거법령에 대한 사례문답을 통해 사찰에서 국가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법

問場 寺經 林十人劫 北持 樺從 打頭 天供

○만해스님이 쓴 한시 일부.

독립운동가, 시인, 불교학자로 평생을 살다간 만해 한용운스님을 기리는 제1회 만해제가 지난 11.12일 충남 홍성 만해생가 등 4개지역에서 열렸다.

범어사 아파트 새국면 쌍방 가처분신청 '주목'

공사중지 가처분과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각각 법원과 경동건설이 제기한 가운데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연이어 공사현장 포크레인 앞에서 아파트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관스님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약

만해스님 삶·시·학문 '추모'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만해추진위원회(위원장 황규철 홍성문화원장)가 주최하고 홍성문화원과 만해학회(위원장 시사당회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만해의 삶, 추모제, 만해 특별기획전, 만해시 낭송회 등으로 진행됐다.

11월 저녁7시부터 흥주문화회관(홍성군 오곡리)에서 열린 만해의 밤에는 원로시인 박두진 조병희와 시인 정진규 신달자, 평론가 김용직씨 등과 젊은 시인 20여명, 만해시사랑회원 10여명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12일 오전 열린 만해 추모제에서는 사당 현관석에 이어 추모사 낭독과 김홍도교수(서울대)의 '만해의 문학세계', 허우성교수(경희대)의 '만해와 성철' 강연이 있었다. 홍성문화원 전시실에 마련된 만해특별기획전은 만해사상연구소장 전보삼교수(신주전대)의 소장 유품·자료 1백여점이 12~25일까지 전시 중이다.

한편 서울 성북구청도 14일 저녁에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시낭송회를 가졌다.

정신대 할머니 보금자리 마련

14일 광주군 퇴촌면에 '나눔의 집' 기공

광복50주년을 맞아 정신대 할머니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나눔의 집 착공식이 오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에서 거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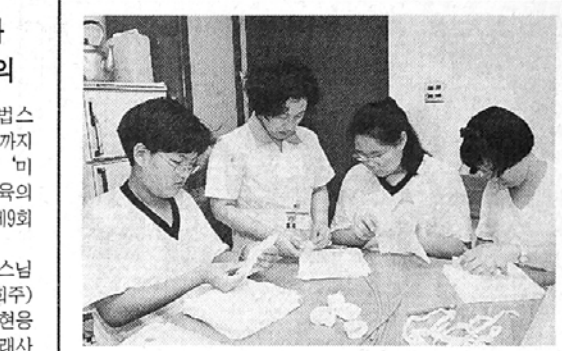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시현스님)는 지난 2일 경기도 광주군으로 부터 나눔의 집 건립을 위한 대지 4백90평 임용허가를 받았으며 총 1백60평, 3개동 2층 양육 규모의 나눔의 집을 건립하게 된다.

지난 92년 3월 정신대할머니들의 생활공간미련을 위해 불교인권위원회에서 구성된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기금 모금활동을 시작, 그해 8월 한독기로부터 나눔의 집 건립터 6백50평을 기증받았다.

이어 10월에는 마포구 서교동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김순덕 할머니 등 7명의 할머니를 모시고 한독기로부터 나눔의 집 시작했으며 현재는 종로구 해

화동에서 7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3년동안 꾸준히 정신대문제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사과요구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대한불교 조계종 중흥원하스님, 가수 이선희씨 등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2억여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나 나눔의 집 완공까지는 더 많은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뜻 깊은 나눔의 집 건립을 위해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02)744-9223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국립의료원 자원봉사실 등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의미를 되새겼다.

청소년 '방학봉사' 체험 현장

"할아버지 맛있게 잡수세요."

"반찬 더 드릴까요."

미아6동 경찰면 자비의 집 무료급식시간. 6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처럼 자원봉사를 나온 보살들 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다들기, 반찬나누기, 식사배급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의 일들을 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 자비 의집에서 다른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7~10까지 4

지난 5·31 정부의 교육개혁안 발표와 더불어 96년부터 학교성적외에 자원봉사활동을 내신성적으로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곳곳에는 자원봉사를 하러는 청소년들이 몰려들었다. 이전부터 보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온 불교자녀 자원봉사연합회도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비해 우리의 불자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95청소년 자원봉사를 실시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전개한 자원봉

"공동체 삶의 참의미 배웠어요"

일간 봉사활동을 펼쳤던 김지영양(인수중 1년)은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일은 늘 집에서 접하던 것이라 그다지 낯설고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주관, 조계종 복지재단 후원으로 지난 1~10일 실시된 '95여름 서울 청소년 자원봉사 현장'의 모습이다. 양로원, 어린이집, 소년원, 병원, 무료급식소, 복지관, 도서관 등 10여곳의 봉사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청소년들이 무려 1백70명이나 된다. 자원봉사에 앞서 1~3일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4~6일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사전교육이 각각 실시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성철스님 사회영향력 1위

광복이후 50년동안 한국사회 사회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성철스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SBS가 '광복 50년 50대 사건'(15일 오후 6시)을 제작하면서 서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성철스님이 24.2% 사회분야 1위를 차지했다.

김법린씨 '독립집' 받아

정부는 지난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법린 전 동국대 총장에게 독립유공자 독립집을 추서했다.

승가대 부·경후회 창립

9월15일 기공식을 갖게되는 중앙승가대 부속, 경남 후회 창립법회가 지난 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 관계자들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삼풍사고 조속처리 촉구

광복, 경찰관들 교계 4개단체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삼풍철강 실종자 사망처리 등 조속한 시정수습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위 단체들은 촉구문에서 호적법 제90조 인장사망제도와 유전자감식을 최대한 활용,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순직장교 시신에서 사리

순직한 육군장교의 시신에서 영혼한 사리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훈련중 과속차량에 치여 숨진 육군 맹호부대 포병 여단 이영호중위의 영결식에서 화장이 끝날무렵 사리가 발견됐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맹호부대는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리탑 건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순경 부대 법당 앞에 부도탑 봉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시 문화재관리소 신설 추진

서울시는 지난 4일 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재관리국은 "구형별로 관리하도록 된 문화재